

함께 달리고 싶은 열정 지원자, 안기란입니다.



안기란 1997년 (27세/만 25세) | 여

✉ dksrlfks6079@naver.com

☎ 010-2727-6079

☎ 010-2727-6079

🏠 (47835) 부산 동래구 사직동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신입	회사내규에 따름	부산전체 정규직	-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6.03 ~ 2021.03	졸업	동의대학교 (부산)	일본어학과	3.7 / 4.5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15.12 ~ 2017.02	아르바이트	초밥집 아르바이트	홀서빙
2018.02 ~ 2018.03	해외연수	일본	일본 후쿠오카여학원대학 단기연수
2018.03 ~ 2018.06	교내활동	동의대학교	일본인유학생 멘토멘티 활동
2018.02 ~ 2019.02	아르바이트	pc방 아르바이트	pc방관리 담당(재고,서비스)
2019.03 ~ 2019.08	해외연수	일본	일본 나고야외국어대학교 교환학생
2020.10 ~ 2022.10	아르바이트	맥도날드	파트타임/크루 교육담당 트레이너
2022.11 ~ 2023.03	교육이수내역	양정인력개발센터	e비즈니스와 빅데이터 양성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21.08	어학시험	JLPT	일본어	1급/PASS
2020.11	어학시험	JPT	일본어	770점/PASS
2020.11	어학시험	SJPT	일본어	5급/PASS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일본어
퍼블리싱
HTML
CSS3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Figma

취업우대사항

고용지원금대상	대상 장기구직자 / 청년취업대상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자신의 몫은 자신이 만들어내기 나름'이라 늘 말씀하시던 부모님은 그만큼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시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내가 선택한 길엔 대소사를 가리지 않는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중 수많은 경험들 중에서 2년 동안 맥도날드에서 겪은 수많은 이슈들은 제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그만두지 않고 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의 동료들과의 유대감도 컸지만 일을 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책임감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가니 기존 직원들의 사소한 텃세도 있었고, 패스트푸드점 특성상 빠르고 정확하게 제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한 만큼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밝은 톤으로 환대하며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를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의 평점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뽑는 친절직원으로 한 해 동안 총 3번이나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책임감은 더 나아가 앞으로 맥도날드에 입사하는 신입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식품을 다루는 기업이기에 교육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가며 신입선출 등의 위생교육을 비롯해 서비스 교육 또한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정직원이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과정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이는 책임감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으로 안겨준 경험입니다. 힘든 난관에 직면하여 방향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책임감으로 성장해나가는 겸손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지원동기]

제가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디자인을 향한 애착과 도전정신으로 다양한 웹을 제작하는 것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웹 페이지라는 것은 가지각색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누구나 사용하기 용이한 구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꼽으라면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중, 대학생이기에 도전할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4학년 1학기 나고야 외국어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강한 '일본어의 개론'이라는 수업에서 교환학생들에 한하여 보조동사를 다룬 발표를 하였는데, 오로지 일본어만으로 학생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압박감이 컸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단순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아닌 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학우로 기억되기 위하여 자투리 시간에는 일본 친구들을 찾아가 보조동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동사를 설명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혹여 발음이 부정확할까 공강 시간에는 멘토 친구를 찾아가 천천히 읽어보며 발음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분 가량의 발표는 긴장감으로 순식간에 끝나버렸지만,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화법으로 이해도가 높은 발표라는 총평을 얻게 되었고 A+이라는 최고점의 점수를 받으며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 나고야 외국어 대학의 학생이라는 소속감은 말로 형용하기 힘든 성취감들로 가슴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현재까지 제 도전정신을 뒷받침해 주어 웹 퍼블리싱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어의 길이 낯설기도 하지만, 직접 제작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무에서 유를 구축하는 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정신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장점:'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항상 열려있는 성장 가능성'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힘이 닿는 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초반에는 첫 대학생활에 설레어 학생회 활동이나 동기들과 어울리기 바빴습니다. 성적은 저조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학점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냥 허송세월 보내기보다 눈으로 증명 가능한 산출물을 이루고자 장학금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학업에 임하였습니다. 동기들과는 어울리되 수업 시간엔 혼자서라도 교수님의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며 공강시간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장 학점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지만, 1학년 2학기 25등에서 2년 1학기 석차 14등을 달성하게되며 1등수의 차이로 장학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쉽다는 마음보다 조금만 더하면 받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 학기에 학점 4.1점을 달성하여 30%의 장학금을 받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4.3점을 달성하며 5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하여 이룩고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단점:'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

아르바이트생 시절 점장님과의 면담에서 저의 수직어는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 다하려 한다."였습니다.

혼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자주 해보았기에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혼자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둘러보아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에 동료들과 소통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정된 포지션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료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등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입사후포부]

@@회사만의 웹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능력은 디자인을 향한 열망과 그에 맞는 고객과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정 인력 개발 센터에서 웹 퍼블리싱 교육을 이수하며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비롯해 코딩 언어를 익혔습니다. 코딩도 즐겨웠지만 평소 간단한 드로잉이나 인물화를 그리는 취미를 가진 저에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포스터나 오브젝트를 만드는 수업은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담당 선생님께서도 디자인 감각에 대한 습득력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이런 열정을 실무에 적용하여 다양한 웹 디자인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유학생 대상의 멘토 멘티 활동에 참여하여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어학능력 향상 목적으로 신청하였던 활동이지만 타국에서 홀로 적응하는 학생들을 만나보며 오히려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고, 유학이 끝나 돌아갈 때 좋은 기억만 남기를 바라며 타국 생활을 도와주었습니다. 본래 멘토 한 명당 멘티도 한 명이었지만 다른 멘티의 멘토 학생이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비교적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멘티의 멘토활동도 겸비해 수강신청이나 기숙사 구비 물품을 구할 때 같이 챙겨주며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친구들과 감천문화마을이나 야구장을 방문하며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저 또한 그 친구들 덕분에 어학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삼아, @@회사의 고객과의 관계에서 항상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경청하여 피드백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업에 기여하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